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 “대표팀 많이 가면 좋아”

월드컵 이어 아시안게임에 대표팀 3명 보내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K리그 전체를 이끄는 리더클럽이다. 올 시즌 K리그(1부리그) 18라운드까지 14승2무2패(승점 44), 12개 구단 중 유일하게 승점 40을 넘는 독보적인 선두다. 2위 경남FC(승점 32)와의 승점 차는 무려 12다.

월등한 실력과 선진 팀 문화를 겸비했다. 당연히 국가대표급 핵심 전력들이 많다.

전북은 2018 러시아월드컵에 김신욱, 이재성, 이용 3명을 보냈다.

수비의 김진수, 김민재가 다치지 않았다면 최대 5명 차출에 응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달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20명)에도 골키퍼 송범근 김민재, 장운호 등 3명이 포함됐다.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그만큼 연령별로 간판급 선수들이 전북에 많다는 뜻이다. 월드컵 때는 K리그가 쉬었지만 아시안게임 때는 예정대로 일

정을 소화한다. 전북은 고스란히 전력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최강희 전북 감독은 18일 “우리는 파주 위성구단인 것 같다”고 웃으며 “월드컵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를 가장 많이 보낸다. 좋은 팀에서 대표팀에 많이 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고 했다.

선수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대체할 자원이 있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었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골키퍼 송범근의 이탈은 뼈아픈 면이 있다.

전북은 리그 일정 못지않게 아시안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도 중요하다. 수원 삼성과의 8강전을 앞두고 있다. 8월29일 열리는 1차전에서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은 함께 할 수 없다.

최 감독은 “송범근은 아시안게임에 갈 줄 알았다. 황병근을 쓰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정민이 부상으로 이탈해 골키퍼 4명 중 2명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괜찮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며 “걱정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뉴스스

부상 복귀 김민재 “월드컵 한, 아시안게임에서 풀겠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김민재(22)가 2개월 만에 부상에서 돌아왔다.

김민재는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18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을 소화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승기와 교체됐다.

부상에서 약 2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다. 김민재는 지난 5월2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상대 슈팅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비골 하부(복숭아뼈)를 다쳤다.

김민재는 복귀전에 대해 “솔직히 조금 힘들었다. 아직 체력적으로 다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힘들어서 집중력이 깨지다 보니 상대에게 쉬

운 기회를 내준 것 같다”며 “체력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다. 60~70% 수준인 것 같다. 다음 경기에서는 최대한 풀타임을 뒀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엔트리 승선이 유력했다.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아 결국 낙마했다. 꿈에 그린 무대를 눈앞에 뒀다가 날린 것이다.

김민재는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20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화범 감독 체제에서 수비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는 “월드컵에서 못 푼 한을 아시안게임에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몸을 만들고 경기력

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계속 쉬었다. (전북에서) 경기를 모두 뛰고 소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집은) 막바지기 때문에 체력은 선수들이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몸 관리를 잘하고 경기력과 체력은 모두 만들어야 한다. 다른 선수들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모드리치, 별 중의 별...세계축구팬 선정 ‘월드컵 드림팀’

호날두, 유일하게 16강 탈락팀서 이름 올려



세계 축구 팬들의 2018 러시아 월드컵 ‘1픽’은 루카 모드리치(크로아티아)였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일(한국시간) 러시아월드컵 동안 팬들이 선정한 베스트11을 중심으로 드림팀을 구성해 발표했다.

1위는 크로아티아의 첫 결승 진출을 이끈 미드필더 모드리치다. 6만5177표, 50.5%의 지지를 얻어 최고 자리에 올랐다.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책임지며 공격에서 날카로운 창 노릇을 했다. 고비에서 골 결정

력도 뽐냈다. 이번 대회에서 2골 1도움을 올렸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브라질의 필리페 쿠티뉴가 2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우승의 중심에 선 영플레이어상 수상자 킬리앙 음바페가 3위에 자리했다.

득점왕 해리 케인(잉글랜드)이 4위, 프랑스의 수비수 라파엘 바란이 5위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케빈 더 브라위너(벨기에), 티아구 실바(브라질), 디에고 고딘(우루과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골키퍼 티보 쿠루투아(벨기에), 미루셀루(브라질)가 드림팀에 이름을 올렸다.

호날두는 유일하게 16강 탈락팀에서 드림팀 일원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12만9000여명이 드림팀 선정 투표에 응했다.



민유라 - 켈린, 팀 해체 진실 공방...“켈린의 나태가 발단”

한국 축구대표팀, 누가 이끌까

유럽 갔던 김판곤 축구협회 감독선임위원장 귀국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장이 보파리를 잔뜩 안은 채 유럽 출장에서 돌아왔다.

대한축구협회는 김 위원장이 18일 오후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 러시아월드컵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된 신태용 감독의 후임을 뽑기 위해 유럽에 머물렀다.

김 위원장은 복수의 후보자들을 만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을 통해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었던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 일본 축구를 경험한 하비르 칼데온 등이 거명됐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추후 절차도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후보자들의 이력은 물론 당장 19일 열린 선임소위원회 장소와 시간,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선임소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3개 소위원회(TSG·스포츠과학·스카우트)가 작성한 러시아월드컵 한국대표팀 리포트,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제출한 월드컵 참가 보고서를 토대로 신태용 감독을 평가한다.

한국은 러시아월드컵에서 1승2패를 거뒀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무너뜨리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우리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 그르친 스웨덴, 멕시코전을 고려하면 신 감독의 재계약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자연스레 관심은 누가 새 감독이 될지로 쏠린다. 김 위원장은 선임소위원회에서 해외 감독 면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감독 후보군에 대한 종합 평가와 협상 대상자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민유라(23)가 알렉산더 켈린(26)의 팀 해체 발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민유라는 19일 오전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켈린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알게 됐다”며 “켈린이 너무 나태해져서 지난 2개월 동안 코치님들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때마다 켈린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지나누까지 사전연습 없이 링크에 들어왔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팔찌를 할 것이다. 그럴바엔 스케이트를 타지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유라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습하던 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켈린이 준비가 될 때까지 연습을 중단하지고 했다. 그렇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 며칠간 스케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켈린은 지난 18일 SNS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함께 출전하고 싶었지만 민유라가 3년간의 파트너십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유라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으로 귀화해 아이스댄에서 감동의 아리랑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뉴스스

제46회 강진 청장축제

2018. 7. 28. - 8. 3.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개막퍼포먼스 : 2018. 7. 28.(토) 오후 7시

□ 기획행사 : 휴을 받고·단지고·적시고(투게더 점핑 소일), 전국 물레성형경진대회 등
□ 전시행사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조선민화 특별전 등
□ 체험행사 : 물랑공 찜자 깨뜨리기, 물 풍선터뜨려 찜자 가져가기,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
□ 공연행사 : 광주KBC개막 축하쇼, 나이트 팝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EDM 공연 등

제11회 정남진 장흥도초제

2018. 7. 27.(금)~8. 2.(목) /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개막식 : 7월 27일 (금) 오후 8시
□ 살수(澆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8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7일 (금) ~ 8월 2일 (목) 오후 2시
□ 맨손 물고기 잡기 : 7월 28일 (토) ~ 8월 2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락 파티
- 7월 27일 / 로꼬, 다이내믹듀오, DJ 소다, DJ 듀유
- 7월 28일 / DJ 원투, DJ 허조교
- 7월 29일 / DJ 춘자, DJ miss K